

# 광주시체육회, 2027년 전국체전 유치 나섰다

전갑수 회장, 대한체육회장 광주·전남 순회간담회에서 의향 공식 표명  
체육 인프라 확충·지방체육 발전 위해 추진...광주시와 의견 조율 관건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인력 확충·생활체육지도자 지원 확대 등 요청

광주시체육회가 2027년 전국체전 광주 유치에 나섰다.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는 지난 8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참석해 광주·전남에서 각각 열린 2023년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서 전국체전 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했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간담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방 체육발전을 위해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광주시가 선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더불어 2038광주·대구아시안 게임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 지역민들의 마음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전국 시도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2027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을 받고 있다. 시체육회가 전국체전 유치를 나선 것은 스포츠 활성화를 바라는 체육인들의 여망을 실현하고 지역경

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40여 개에 종목을 달하는 종합스포츠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스포츠 저변 확대는 물론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개최 당해년에 전국 장애인체전이 함께 열리고 이듬해에는 전국소년체전, 생활체육제전 등 굵직한 행사들이 연동돼 치러진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10월 제88회 전국체전을 개최한 바 있다. 2008년 전국체전을 개최했던 전남은 올해 목포 등지에서 전국체전을 치른다.  
시체육회가 광주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의견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광주시와 시의회 등의 동의를 거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  
대회 개최를 위해 예산 700~800억원이 소요되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난 8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주재한 2023년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서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순회간담회에서 이 회장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순회간담회에서 이 회장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체육회 제공)

는 등 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전국체전 광주유치는 스포츠 활성화를 바라는 체육인들의 염원"이라면서 "현재 체전유치를 위해 광주시 등과 다각적인 채널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방체육

회 인력확충과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소년체전 선수단 체류비 현실화,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사업 개선,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 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정부 스포츠혁신권 위고안 개선, 평창동계훈련·교육

센터 준공, '체육계 중점과제 및 대한체육회 주요 현안'과 지방체육회장 선거 후속 조치, 시설 무상사용 법률 개정, 지원 의무화 조례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수피아여중 농구 '천하무적'

연맹회장기 우승...춘계대회 이어 올 시즌 두번째 트로피

광주 수피아여중 농구부가 또다시 전국 대회 정상에 섰다.  
수피아여중은 9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 여중부 결승에서 청송중을 68-39로 꺾고 우승했다.  
수피아여중은 지난 3월 제60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우승 이후 올 시즌 두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수피아여중은 중학생 무대에서 적수가 없을 정도로 탄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2022연맹회장기 전국중고농구대회,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77회 전국남녀중고농구선수권대회, 2022 한국중고농구 주팔리걸 왕중왕전에서 우승, 4관왕을 달성했다.  
정승중과의 이날 경기는 압도적이었다.  
임연서(3년)가 37득점 21리바운드 5어시스트 6스틸 원맨쇼를 펼치며 승리를 이끌었고 김사랑(3년)이 14득점 15리바운드, 김담희(2년)가 10득점 10리바운드로 활약했다.

이나현(1년)도 5득점 6리바운드 2어시스트 4스틸로 힘을 보탰다.  
임연서가 대회 최우수선수상과 득점상을 받았고 윤새나 감독과 이선영 코치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수피아여중은 2쿼터 초반 26-16으로 여유있게 리드하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3쿼터 시작 3분여만에 45-24로 달아났다. 공세를 늦추지 않은 수피아여중은 55-29로 3쿼터를 마치고 4쿼터에서 29점차로 앞서며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수피아여중은 지난해 주중 멤버였던 이기현 등이 졸업했음에도 전력 누수 없는 팀워크를 보여줬다.  
올해 3학년이 된 임연서와 김사랑을 주축으로 지난해 소년체전 은메달을 딴 방법초 출신 김가은, 송지연 등 신입생이 합류하면서 전력을 보강, 이번 대회 우승을 일궈냈다.  
이선영 수피아여중 코치는 "다른 팀들의 전력이 좋아지면서 지난 3월 춘계연맹전이 사실 부담됐던



수피아여중 농구부가 9일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 대회 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수피아여중 제공>

대회였는데 선수들이 우승을 해주면서 출발이 좋았고, 이번 대회까지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선수들이 우승도 많이 해보고 이기는 승부를 하다보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김천까지 수피아여중 학생들이 먼길을 달려와 응원해줬다"며 "관중석에서 큰 소리로

응원해주고 교가도 불러주면서 선수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었다.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수피아여중은 이달 말 소년체전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라우레우스 스포츠 어워드 선정 올해의 남녀 스포츠인에 메시·플레이저-프라이스



리오넬 메시 프레이저-프라이스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와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자메이카)가 2023 라우레우스 올해의 남녀 스포츠인에 선정됐다.  
라우레우스 월드 스포츠 아카데미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2023 라우레우스 스포츠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하고 부문별 수상자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끈 메시가 올해의 남자 스포츠인 영예를 안았다.  
메시는 2020년 포뮬러 원(F1)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턴(영국)과 공동 수상한 이후 개인 통산 두 번째로 이 상을 받았다.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은 올해의 팀으로 선정돼 최근 1년 사이 스포츠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인정받았다. 올해의 스포츠인과 올해의 팀 2관왕은 2000년 라우레우스 스포츠 대상 제정 이후 올해 메시가 처음이다.  
올해의 여자 선수로 뽑힌 프레이저-프라이스는 지난해 7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m에서 우승, 세계선수권에서만 통산 5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신인상' 격에 해당하는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상은 지난해 US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우승자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에게 돌아갔다.  
올해의 컴백상은 심장마비를 딛고 그라운드에 복귀한 덴마크 축구 선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받았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스타로 떠오른 스노보드 선수 구아이링(중국)이 올해의 여성 스포츠인에 뽑혔다.  
/연합뉴스

## 우상혁 2m32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발전 1위 세계선수권 기준기록도 통과

우상혁(27·용인시청)이 올해 처음 치른 국내대회에서 2m32를 뛰어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사실상 손에 넣었다.  
우상혁은 9일 경상북도 예천 스타디움에서 열린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높이뛰기 남자대학·일반부 높이뛰기에 출전해 우승했다.  
첫 번째 점프에서 2m16을 넘어 1위를 확정했고, 두 번째 점프에서는 2023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인 2m32를 넘었다.  
이날 2위를 차지한 박순호(영주시청)의 기록은 2m10이었다.  
우상혁은 대부분의 선수가 경기를 마친 뒤, 자신의 성 'WOO'와 태극기를 새긴 스파이크를 신고서 첫 도약을 준비했다. 2m16에 도전한 선수는 우상혁과 박순호 두 명뿐이었다.



우상혁(27·용인시청)이 9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높이뛰기 남자대학·일반부 결승에서 2m32를 1차시기에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혁은 1차 시기에서 가볍게 바를 넘었고, 박순호는 2m16의 벽에 막혀 경기를 끝냈다.  
우승을 확정짓는 우상혁은 바를 2m32로 높였다. 박순호는 유도하며 분위기를 띄운 우상혁은 1차

시기에서 2m32를 넘고, 포효했다.  
이번 대회 목표를 이룬 우상혁은 기본 좋게 '경기 종료'를 선언했다.  
우상혁은 "(시차 탓에) 한 시간 자고 경기장에

왔다. 피곤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바가 높아 보이지 않았다"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하고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까지 통과해 기쁘다"고 환하게 웃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2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3관	문재인입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스트리머
4관	드림
5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극장판 핑구는 떨어지지 않아요: 동물소환 남자 배꼽수비대, 바람개비
6관	드림
9관	문재인입니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극장판 핑구는 떨어지지 않아요: 동물소환 남자 배꼽수비대
7관	씨네카를 존 워 4, 유령자구2
8관	씨네카를 스즈메의 문단속, 리바운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III 이종섭, 오로로 보낸 편지'  
일시: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6